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적 경험을 통한 치유로서의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정은

일상적 경험을 통한 치유로서의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김정은

인 준 서

김정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겪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일상적 경험의 관찰과 재인식을 바탕으로 치유로서의 회화 표현에 관하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현대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물질주의가 중시됨에 따라 개인주의 또한 심화되어 가면서 인간들은 스스로가 각박해지고 고독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독함은 좌절감과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오게 된다. 마음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때 인간들은 스스로를 고립하고 그러한 감정은 더욱 더 깊어지고 혼란스러워 지게 된다. 그럴 때면 인간들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여 그 순간을 벗어나려 한다. 기분을 돋우고 흥분 효과를 내는 자극적인 기호식품이나 약에 의지하거나 감정을 다른 이에게 풀어내는 등 순간적인 쾌락으로 자기만의 수단을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순간적이고 수동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심리적으로 상실감, 무력감, 좌절감, 공허함 등을 느끼게 하여 오히려 개인의 존재를 위협한다.

본인은 이러한 감정을 조금 더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고, 외로운 감정이나 상황을 유쾌하게 전환시켜 상상하곤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것으로부터 얻는 경험을 되새기는 과정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다. 삶에 있어 너무도 당연시되고 반복되는 삶이기에 그 중요성을 잃은 채 지나쳤던 일상에 주목하고,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고독하고 불안한 감정들이나 상황들을 유쾌하게 전환시켜 상상하고, 흥미롭게 재인식된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어 회화를 통해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한 내면에 대해 심리학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보다 긍정적인 내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방안을 일상적 경험을 통한 회화의 치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작품 형성 과정을 통해 회화의 창작과정 있어서 일상에 주목하게 된 중요성에 대해 논해보고,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 뿐 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3
1)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3
2) 치유로서의 회화	6
① 미술의 치유적 역할	6
② 회화의 치유적 가능성	9
2. 작품형성 과정 및 분석	15
1) 일상적 경험을 통한 수집과 차용	15
2) 드로잉적 표현 방법	22
3. 작품설명	25
III. 결론	49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작품 1] <커피 마시는 사람 I>, 장지에 혼합재료, 110 x 70 cm, 2008 25
- [작품 2] <커피 마시는 사람 II>, 장지에 혼합재료, 53 x 46 cm, 2008 27
- [작품 3] <옷 벗는 사람>, 장지에 혼합재료, 227 x 182 cm, 2013 29
- [작품 4] <감추고 싶은 사람>, 장지에 혼합재료, 91 x 73 cm, 2013 31
- [작품 5] <부분마취>, 장지에 혼합재료, 194 x 130 cm, 2013 33
- [작품 6] <심폐소생술>, 장지에 혼합재료, 162 x 130 cm, 2011 35
- [작품 7] <축박한 사람 I>, 장지에 혼합재료, 41 x 32 cm, 2011 37
- [작품 8] <축박한 사람 II>, 장지에 혼합재료, 194 x 130 cm, 2013 39
- [작품 9] <과부하>, 194 x 13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3 41
- [작품 10] <위안 위한 행위>, 53 x 46 cm, 2013 43
- [작품 11] <위안>, 장지에 혼합재료, 80 x 65 cm, 2011 45
- [작품 12] <길거리 장난감>, 장지에 혼합재료, 53 x 46 cm, 2010 47

도판 목록

- [도판 1] 프리다 칼로, <부서진 기둥(Lacolonne brisée)>, 캔버스에 유채, 40 x 30.5 cm, 1944
- [도판 2] 루이스 부르주아, <침대 위의 일곱명의 인체(Seven in Bed)>, 철,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나무, 172.7 x 85 x 87.6 cm, 2001
- [도판 3] 천경자, <생태(生態)>, 종이에 채색, 58 x 83.5 cm, 1951
- [도판 4] 박생광, <명성황후>, 한지에 수묵채색, 330 x 200 cm, 1983
- [도판 5] 박생광, <전봉준>, 한지에 수묵채색, 510 x 310 cm, 1985
- [도판 6] 사이 톰블리,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오일, 크래용, 200.6 x 261.6 cm, 1968

I. 서론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겉모습과는 달리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과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외감과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회화를 통해 치유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내면 표현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임과 동시에 치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회화이다.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색채와 형태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생각을 담아냄으로써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내면 의식을 본인만의 조형적인 형태와 색채로 만들어 표현하고 시각적 충족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회화를 표현하는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가까이에서 그 중요성을 잃은 채 지나쳤던 일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고독하고 불안한 감정들이나 상황들, 즉 현대인들의 모습이자 본인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그것들을 유쾌하게 전환시키고 상상하며 흥미롭게 재인식된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며 위로를 얻고 치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론 I 장에서는 작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배경이 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고,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의학을 바탕으로 하여 내적 고통과 불안을 회화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화의 치유적 역할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회화 작품을 통해 치유를 이야기 한 현대 작가 프

리다 칼로, 루이스 부르주아, 천경자, 박생광의 사례를 들어 실제 회화의 치유적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 II장에서는 본인이 일상에 시선을 주목하게 된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적 경험을 통해 소재를 얻는 방식과 얻어진 소재를 재인식의 과정을 통해 차용함에 있어서 관람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론 III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과정들을 토대로 형성된 작업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와 이미지가 표현하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독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냄과 더불어 일상적 경험을 통한 회화가 치유에 있어서의 역할과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1)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현대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기계화된 삶과 더불어 물질주의가 중시되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들은 급격한 발달에 도태되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며 그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 극도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이러한 소외감은 현대인들에게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해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어가고, 이로 인해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는 물질만능주의가 생겨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어져 인간들은 서로 경쟁의식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¹⁾는 현대사회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경쟁의식이 개인의 존재를 위협하고, 자아를 쉽게 잃어

1)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는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사이자 철학자이다.

그가 비록 인본주의 심리학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적 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메이는 신학자 파울 틸리히와 친한 친구였다. 그는 《사랑과 의지》(Love And Will), 《창조할 수 있는 용기》(The Courage to Create, 뒤에는 Tillich's The Courage to Be로 이름이 바뀌긴 하였음)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썼다. (위키피디아)

버리며,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삶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불안과 고독을 초래한다고 하였다.²⁾ 이렇듯 현대인들은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그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은 더욱 더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독감을 이겨내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는 방향으로 삶을 잘 꾸려 나간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기만 하려는 태도는 자주 부적절한 행동, 심지어는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포만감을 느끼려고 폭식을 하거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활동과잉 성향을 보이거나, 인터넷을 통해 흥분된 감각과 상상 속에 빠져들거나, 현실에서 얻지 못한 위안과 만족감을 마약에서 얻으려고 하거나,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절망적으로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행동들이 그 예이다. 심지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고통은 그것을 일종의 실패나 버림받음, 지루함으로 느끼거나 무의미한 경험으로 간주할 때, 실제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³⁾ 또는 무력감에 빠져 의욕 상실 등으로 내적 공허함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⁴⁾는 ‘자기 방어 수단으로 현실을

2) 롤로 메이,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pp.15~36

3) 제라르 마크롱(Jerard Macqueron), 정기현(역), 『고독의 심리학』 뮤진트리, 2010, pp.11-12

4)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과의 창시자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 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자유연상, 치료관계에서 감정 전

부정, 왜곡하며 인성발달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안을 감소시키려 한다.’ 5)고 하였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안 요소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비춰진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미술을 통해 자기 치유를 논한 두 인물 중 한명이 앞에 언급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이고, 다른 이는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⁶⁾이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것이 꿈을 통해 이미지로 나타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바탕을 두어 욕망과 내적 갈등을 직면함으로써 자기분석을 통한 예술작품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자기 치유적 특성을 이야기 하였고, 융에 의하면 미술은 인간이 가지는 무의식의 세계와 내면세계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억제된 감정과 사고를 표출하여 치료적 효과를 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⁷⁾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문명의 발달로 고독해지고 불안해진 내면을 좀 더 긍정적이고 내적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면세계의 욕망, 또는 정서를 회화라는 작품 활동을 통하

이의 이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 학자이기도 하였다. (위키 피디아)

5) 캘빈 홀(Calvin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편집부(역), 서울:두로출판사, 1994, p.118

6) 칼 구스타브 융 (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 현상을 성욕에 귀착시켜 설명하는 프로이트에 반대하였고, 아德勒(A. Adler)의 사상을 받아들여 성격에는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도와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면서 미개인의 생활을 관찰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층 심리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오랜 집단생활에 의해 심리에 침전된 '집단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7) 송승희, 『자기술회를 통한 미술치유에 관한 연구: 이중섭, 프리다 칼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10, p.21

여 치유 받고자 하였으며, 이에 회화가 치유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치유로서의 회화

① 미술의 치유적 역할

치유(Healing, 治癒)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거나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을 뜻한다. 미술 치유는 대부분 심리학을 근거로 두고 있다.

회화 작품의 창작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고독의 불안과 고통을 대면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표출 할 수 있는 위로의 수단이 되며, 예술적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회화 작품을 통해 이미지에 예술적 형태를 투영하기도 하며, 외부세계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술의 치유의 속성을 미술 치료(Art Therapy)라 일컫는다.

미술 치료(Art Therapy)란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나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여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미술 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 치유방식을 말하는데, 본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자기 치유란 내담자가 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의 창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방

식을 말한다. 이러한 예술과 치유를 심리학적 근거로 분석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융(Carl Gustav Jung)은 자신의 꿈과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얻어지는 '적극적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 그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이면 적극적 상상력을 통하여 자신의 심상을 표현하곤 하였는데, 자신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그려냄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성숙 단계를 거치게 되며 정신적 안정감과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실제 경험의 상징을 통한 미술이라는 행위는 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치료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융의 이론은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회화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치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미술의 자기 치유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미술활동을 통해 인지적인 변화와 감정적 보상,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이론가 이디스 크레이머(E.Kramer, 1916~)⁹⁾는 미술의 치유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림의 치료적 속성은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즉, 미술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 시킨다." 고 주장하였고, 환자는 미술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환상에 접근하면서 갈등을 재경험하고 자기훈련과 인내를 배

8) 캐시 A. 말키오디,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연 옮김, 조형교육, 2008, p.20

9) 이디스 크레이머(Edith Kramer, 1916 ~)에게 있어서 미술치료는 진단을 위한 도구가 아닌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기표현 그 자체로써 승화작용을 하며 미술작업을 통해 발산하는 억제된 자신, 즉 무의식의 분출로 인해 억압된 감정들이 감소되며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술작업과정을 통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움버그와는 다르게 미술치료는 진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술작업을 하는 치료과정 자체가 치료라고 보는(art as therapy) 입장을 취했다. (도형분석상담연구소)

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¹⁰⁾라 하였다.

이러한 크레이머의 견해와 같이 창작 활동은 억눌려 있던 자신의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방향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을 통해 인지적인 깨달음과 정서적인 카타르시스(Catharsis)¹¹⁾를 바탕으로 나 자신과 만나게 된다. 즉 그림에 나타난 이미지는 상징적 자기보고이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보여주는 행동은 미술을 통해 한 번도 표출한 적이 없는 감정을 안전하게 발산하는 것을 경험한다.¹²⁾

인간은 현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Trauma)¹³⁾가 생성되어 극단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뇌에서는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트라우마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기 위해 뇌 내에 엔돌핀(Endorphin)이 분비되는 것인데 의식을 몽롱하게 하고 감정의 격렬한 반응을 줄여주면서 고통에 둔감하게 만들어 준다. 일종의 자가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다.¹⁴⁾

이처럼 회화를 통해 내면의 자기의 상처와 욕구를 직면하는 과정은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슬픔 등 주체하기 힘든 느낌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럴 때 회화는 마음속에 있

10)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동아문화사, 2000, p.35

11) 카타르시스(Catharsis, 그리스어)<심리> 정신 분석에서,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 심리요법에 많이 이용한다.(국립국어원)

12) 주리아,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서울:학지사, 2000, p.206

13) 트라우마(Trauma)란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 기억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들을 수 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14) 김준기,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시그마북스, 2009, p.190

는 생각이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위로의 수단이자 치유의 대상이 된다.

② 회화의 치유적 가능성

랭크(Otto Rank, 1884~1939)¹⁵⁾는 창조 욕구가 생의 불안에서 온다고 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로, 문화는 인간 존재의 딜레마를 다루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나름의 방식들이며, 인간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종교, 예술, 윤리, 가부장제 등 집단 이데올로기의 수많은 양태들을 양산하고 사회적 진실, 소위 현실을 구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거대한 믿음의 체계들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무수한 개인의 서사(敍事)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모더니즘 미술이 붕괴된 지점에 개인들의 믿음 체계를 형상화하는 일루전(Illusion)¹⁶⁾의 공간을 만드는 미술이 대두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의 현실적인 제약이나 위협, 혹은 생의 공포나 두려움이 배제된 가상적 삶, 즉 그들의 내적 현실을 구축하게 된다. 외적 현실이 의심스러운 것, 혹은 실존을 소외시키는 것이 되었을 때, 개인들은 그들의 내적 현실을 담은 일루전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일종의 반항적인 제스처로서의 미

15) 오토 랭크(Otto Rank, 1884~1939)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로서 당초 프로이드로부터 정신분석을 배웠다. 후에 출산에 따르는 분리현상을 중시한 출산의상학설을 세우고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요법(will therapy)이라고 칭하였다. 클라이언트를 획일적인 형으로 맞춰 넣는 방식을 지양하고 유일하고 독자적인 존재로 분리·독립시키는 과정을 착안하고 프로이드로부터 독립했다. 카운슬링의 영역에서 로저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기능주의 케이스워크의 이론적 지주가 되었다. (doopedia, 두산백과)

16) 일루전(Illusion) : 환각(幻覺) 또는 환상(幻想). 일종의 착각으로 본래는 실제(實在)하지 않는 형상을 마치 실재하는 것 같이 지각하는 작용 및 그 형상(形象)을 일컬음. 미술에서는 시각적 일루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특이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이 창조해내는 세계가 다소 현실(또는 진실)같이 보이더라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예술의 본질은 일루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콘라드 랑게(Konrad Lange, 1855~1921)는,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 형수(享受)의 목적인 미적 쾌감을 의식적인 자기기만으로서 일루전의 유희에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예술 환상설을 부르짖었다.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한국사전연구소

술은 억압되지 않은 고유한 창조 욕구의 발현으로서의 생성적이고 치유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내적 진실을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을 회화를 통해 발현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알림으로써 생의 불안과 존재의 비극을 극복한다.

메를로-퐁티(Merleau-Ponty, Maurice, 1908~1961)¹⁷⁾는 미술을 '야생적 직물이 접근하여, 일루전을 깨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즉 미술은 야생적인 내적 진실과 세상을 연계하는 일루전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으로써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다루는 일루전의 기능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현대 작가들은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들이 지각한 세계를 하나의 광경으로 바꾸어 세계가 어떻게 접촉되고 있는가를 가시화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이미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소생될 때 고립된 개인의 삶들을 결합시키며 개인의 고집스런 망상이나 환각이 아닌 모두의 현실이 된다.¹⁸⁾라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내적 진실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미술의 치유적 힘을 말한 적절한 축약으로 여겨진다.¹⁹⁾ 이렇듯 창의적인 발현을 통한 일루전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무수한 서사의 나열은 곧 현실을 살아가는 사회 모습의 반영이며 개인의 치유이자 현실 사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치유라고도 할 수 있

17)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현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콜라쥬 드 프랑스의 교수.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르트르가 창간했던 『현대』지에 협력하였지만 그와 의견을 달리하여 대립하게 되었다. 메를로 퐁티의 실존철학에는 후설의 현상학적 고찰이 짙게 나타나 있다. 감각에 직접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실재라고 말하고, 주관과 객관은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 관계하고 있다고 보는 주관적 관념론을 주장했지만, 이것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하여 '제3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입장을 통하여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를 종합하려고 했다. (doopedia, 두산백과)

18) Maurice Merleau-Ponty,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p.203

19)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p.14 인용

다.

사실 미술은 이러한 불안한 현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치유의 목적으로 출발했다. 선사시대 구석기인들이 동굴에 벽화를 그려 넣고 주술적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냥으로부터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해방시키기 위한 의식 또는 성공적인 사냥을 위한 기원을 위함으로 그려졌다. 또는 마음의 평안을 기도하며 만다라 형태의 모래 그림을 그리는 티베트인들의 창작 활동은 치유와 회복을 기원하는 미술의 치유적 가능성을 다루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예들은 인간이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시기에 미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중대되는지를 보여주고, 객관화와 상징을 통해 비탄과 상실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말해준다.

미술은 이렇듯 중대한 심리적 교착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래적인 본능에 가까우며, 이를 통해 직관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내면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인류는 미술의 강력한 치유적 힘을 자연스럽게 감지해냈고, 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했을 때 미술을 통해 생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즉,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미술의 치유력에 대한 논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²⁰⁾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미술이 치유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미술 활동은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끊 없이 이어졌고 현대 회화에서도 개인의 서사를 통해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작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해외 작가로는 버스 충돌 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정신적인 고통을 작품을 통해 극복한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

20)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p.4 인용

리다 칼로(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가족애의 그리움 등 지극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상처를 고백하며 작업을 통해 치유하는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가 있다.

프리다 칼로는 1913년 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겼고, 18세가 되는 해에는 버스 충돌 사고를 크게 당해 회복기 동안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석고 보정기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 사고로 인해 그녀는 일년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했으며, 사고 당시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자화상을 통해 드러내며 감정을 치유하였다. 1

1929년 그녀는 그의 연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²¹⁾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여성편력을 가지고 있던 리베라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칼로는 그로 인해 질투와 분노 그리고 고독과 상실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이처럼 칼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리베라와의 불안정한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그림에 전념함으로써 치유를 시도했다. 병상에서 시작된 그녀의 작품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작품에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녀의 직접적인 표현 방법은 고통을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통에 대한 욕구가 주된 작업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 1930년이 되는 해에 칼로는 어머니와 아이를 잃은 이중의 상실을 겪고, 오른발 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유산에 더해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은 그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

21)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는 멕시코의 화가로 멕시코내란 종식과 함께 귀국하여 미술가협회를 결성, 활발한 벽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멕시코의 신화·역사·서민생활 등을 민중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넘실한 감각과 힘에 넘치는 벽화를 그렸다. 민중에 대한 애정이 넘쳐흐르며, 유럽회화의 전통을 멕시코의 전통에 결합시키려 했다.

었다. 그녀는 그러한 고통스런 내면을 자화상을 통해 드러냈다. <부서진 기둥>[도판1]을 보면 여러 차례 수술을 겪으면서 느꼈던 고통을 못에 박힌 모습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자신의 고통을 자화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수점의 자화상을 통해 고통을 그려내며 극복하고 치유하려는 그녀의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개인적인 상처를 고백하며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기 치유를 시도한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가 있다. 부르주아의 아버지는 그녀의 가정교사와 불륜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다. 건강이 좋지 못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을 수용한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부르주아를 권력에 대해 공포심과 회의감에 들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된다. 부르주아는 이러한 감정들을 작업을 통해 치유를 시도했다.

“나의 작업은 카타르시스(Katharsis)이며 내 정화이다. 나는 내가 경험한 상처, 증오, 고민을 표현하고자한다” 또한 그녀는 "우리 가족의 여자들은 모두 바늘을 사용했는데, 나는 그 바늘의 마술적 힘에 이끌렸다. 그것은 손상을 치유하며 관대하다." 라고 말했고, 심리적 불안을 가진 그녀는 평생 동안 예술과 대면하고 그것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였다. <침대 위의 일곱 명의 인체(Seven in Bed)>[도판2]에서 보여 지듯이 바늘은 그녀에게 있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임을 말해주고, 그 도구를 이용하여 천 조각들을 꿰매고 봉합함으로써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국내 작가도 마찬가지로 회화를 통해 치유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표상 또는 상처에 대한 자전적 성격을 회화 작업을 통해 치유하는 작가 천경자(千鏡子, 1924~)와 주술적 신화를 통해 치

유를 이야기한 작가 박생광(1951~)이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의 천경자는 전남여고를 거쳐 1944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46년 광주 여고 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로 수차례의 전시회는 물론 지구를 돌면서 쓴 해외 여행기와 수필, 자서전 등으로 필명을 날렸던 여류화가이다. 작업 전기에는 주로 현실의 삶과 일상에서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삶과 죽음 등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일본 유학 이후 겪은 6.25 전쟁으로 인해 기울어 버린 가세, 아버지와 여동생의 투병 그리고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겪을 당시 <생태(生態)>[도판3]의 혐오의 대상이자 끔찍한 소재인 뱀을 그림으로써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려는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준다. 35마리의 푸른 뱀들이 뒤엉켜 눈으로 독을 뿜거나 환희에 차 울부짖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 작품은 뱀이라는 끔찍한 소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희망을 찾아내고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의 가능성을 주술적 신화를 회화와 결합하여 이야기하는 작가로 박생광(朴生光, 1904~1985)이 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명성황후와 전봉준을 불러내어 일종의 씻김굿을 행하듯이 그려내었다. 그것이 바로 <명성황후>[도판4]와 <전봉준>[도판5]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들에서 그의 그림은 일종의 치유적 성격을 지닌다. 굿을 통하여 죽음과 삶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듯이 그는 그림을 통해 죽은 이와 대화를 나누고 그 한을 현실계로 끌어내 다시 그 지난 역사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 아래 살게 한다.²³⁾

이러한 여러 작가들을 바탕으로 알아본 결과 회화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회를 담아내고, 그들은 현실이 담겨진 회화를 통해 자기 치유를 시도한다. 결국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회화를 통해 이야기 하면서 불안을 극복하고 치유와

22) 한국일보, 『千鏡子<생태>/화단 경약, 대표작을 찾아서1』, 1997.01.21.

23) 노태범, 『呪術美術의 象徵性과 그 形象化에 대한 研究 : 符作의 現代的 解析과 變容을 中心으로』, 단국대 조형예술학과 동양화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177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회화는 불안한 현실과 삶의 고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치유의 목적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작품형성 과정 및 분석

1) 일상적 경험을 통한 수집과 차용

'일상성은 우선 보잘 것 없다.

지루한 임무, 모욕적인 인간관계, 언제나 반복되는 사물들

혹은 상품들과의 관계, 늘 상 해결되지 않는 돈이나

욕구와의 관계 등등. 요컨대 궁핍의 존속이고,

부족함의 연장이며, 박탈, 억압, 채워지지 않는 욕망, 비천한

인생의 반복이다. 이것이 일상성의 비참함이다.

그러나 일상성에는 비참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온갖

창의성과 기쁨, 쾌락도 들어 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도 지루한 어느 일상적 하루 중에서였고, 위대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느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일상성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그 완강한 지속성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의 삶처럼 일상성은 땅에 뿌리박고 영원히

지속된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축제를 벌여도, 그것들이 끝나면 다시 일상성은

집요하게 지속된다. 혁명도 마찬가지다.

비참한 일상을 끊기 위해 혁명을 해 봐도 그것 역시 어느새 다시 제도,

관료주의 등의 딱딱한 일상적 틀 속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일상성의 위대함이다. '24)

앞에 언급되어진 역자의 글에서처럼 일상은 삶에 있어 너무도 당연하고 반복되는 삶이기에 인간들은 그 중요성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무관심, 무감각해 지는 비인간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의 근원은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며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일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주목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거대담론과 형이상학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던 모더니즘 사고에서 벗어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대두되면서 주변에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에 대해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 분야를 넘어 문화 전반으로 이어지고 그 속도는 말 그대로 섬광처럼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이 전 사회에 범람하게 된다.²⁵⁾ 이와 같은 문화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지극히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나 소재에서 대중성을 이끌어 내는 팝아트의 등장까지 일상은 대중과의 소통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예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 언급되어진 회화가 치유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본인이 치유에 있어서 일상이란 현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작품을 형성하는

24) 앙리 르페브르(Henri Refebver),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기과당, 2006, p.9

25)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12, p.8

과정에 있어서 일상과 예술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일상에서의 경험은 예술가에게 있어 창작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이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²⁶⁾에 의하면 “체험된 것은 표현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표현은 삶을 가장 충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표현은 새로운 것을 낳는다.”²⁷⁾라고 하였다. 딜타이가 말하듯이 모든 예술작품은 일상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체험된 기억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을 시도한다.

이는 재인식과도 연관이 있는데 재인식은 과거에 경험 한 것을 현재의 경험 속에서 다시 의식에 떠올리게 하여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되뇌고 상상함으로써 일상에서의 경험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인은 일상적 경험을 재인식의 기회로 삼아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인간의 고독감과 불안한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동시에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2.16~1944.12.13)²⁸⁾에 의하면 회화는

26)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해석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해석학 연구자이고 철학자이다. 그는 그간 경시되어 온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독일 낭만주의운동의 일부이자 경험주의자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의 경험주의적 작업은 중심적인 인식론적 가설의 측면에서 영국 경험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과학에 대하여 정신 과학의 분야를 방법론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삶의 직접 체험에 바탕을 둔 '생의 철학'을 주창하여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기술적 분석적 심리학> <체험과 창작> 등이 있다. (위키백과)

27) Otto F. Bonllow, 『삶의 철학』, 백승균 역, 경문사 1979, p62

28)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러시아 태생의 화가. 추상미술의 아버지이자 청기사파의 창시자로 사실적인 형체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불리며, 바우하우스의 교수로도 재직했다. (doopedia, 두산백과)

자기의 내면적 욕구, 즉 인간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한다고 그의 「회상록」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술의 발전은 시대·주관적인 것에서 영원·객관적인 것을 발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객관적인 것을 통해 주관적인 것이 투쟁하는 것²⁹⁾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는 감각, 감정, 이성을 통해 대상을 작품화하여 그것이 그 사회와 문화의 전반에 걸쳐 공감을 이루어 그 시대의 예술로 자리 잡음으로써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³⁰⁾

이처럼 본인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이들이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치 커다란 그림일기와 같은 형태로써 일상에서 얻어진 경험을 관찰의 재인식과 상상의 과정을 거쳐 감각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나쳤던 감정이나 본인만이 느꼈던 느낌을 표현한 작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커피마시는 사람 I> [작품1]은 카페인이 든 커피음료를 마시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커피를 잠을 이기기 위하여나 기호식품으로써 마시기도 하지만 본인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느껴져 그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무기력한 자신을 움직이게 하려는 본인의 경험을 담아 카페인이 위장기관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맥박이 상승된 사람의 격앙된 모습을 담아냈다. 현대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카페인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업무량과 싸워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아내기도 한다. <커피마시는 사람 I> [작품2]도 이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한 작품으로 커피를 들이붓는

29)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79, p.70

30) 김윤경, 『이미지를 통한 내면의식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7, p.3

모습을 더 격하게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부각시켰다.

<옷 벗는 사람>[작품3]을 통해서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타일 벽에 둘러싸여 성질이 난 듯이 옷을 벗어젖히는 땀방울이 바지를 입고 있는 남성의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저 옷을 벗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화면을 통해 바쁜 현실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친 작업으로 <축박한 사람 I>[작품7]은 현대인의 바쁜 생활상을 눈 네 개와 시계라는 매개체를 결합하여 급박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고, <축박한 사람 II>[작품9]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역할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여섯 개의 팔을 통해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앞에 나열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지친 일상적 모습을 관찰하고 경험하여 재인식의 과정을 통해 희화시켰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다소 과장되고 유희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표현해 보았다. 앞서 나열한 작업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본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을 통해 유희적 재인식을 함으로써 마냥 웃어넘기기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렇듯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행동을 본인의 주관적 경험과 상상을 토대로 재인식의 과정을 거쳐 창작의 시간을 갖고 고독의 시간을 능동적인 시간의 형태로 바꾸어 감정을 표출하였다. 또한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소통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괴로웠던 경험의 기억을 재인식함으로써 표현한 작업 <부분마취>

[작품5]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큰 수술은 아니었기에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하반신에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경험을 떠올려 작업을 하였는데, 마취가 깨어난 후 퍼져있는 다리를 풀어달라고 계속 조르던 경험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업에 옮겼다. 이러한 별거 아닌 기억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을 재인식의 과정을 통해 감정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은 예술가에게 있어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또한 일상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통해 미적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이처럼 형상들을 눈으로 보고 획득하는 것 또한 하나의 일상적 경험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얻어진 형상으로는 추상화가의 작품부터 시작하여 인테리어 용품이나 책, 장난감, 때로는 생수병과 같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이미지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본인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부터 조형적 충족감을 느끼는 형상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소재로 차용하여 작업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감각적·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象)을 뜻하는 형상은 예술을 성립시키는 데 기초가 되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미적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이라 생각한다.

화판 앞에 서서 붓을 들고 서있을 때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안에서 미적 충족감을 느끼는 것들을 찾아 드로잉을 통해 기록 해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수집한 형상들을 차용하여 작품에 표현한다. 이러한 차용은 형상 자체가 작품이 되거나 또는 작품의 장식적인 효과, 재미의 요소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각도로써 활용되어진다.

<옷 벗는 사람>[작품3]에 땡땡이 무늬와 타일 벽 무늬처럼 수집되어 차용된 형상이 장식의 효과로 들어간 작품과 <축박한 사람Ⅱ>[작품8]배경에 나

타난 꿈틀거리는 형상은 레이스를 단순화하여 깔아 표현해 준 것으로, 여성과 레이스라는 형상을 결부시켜 형태의 재미와 더불어 여성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위안 위한 행위>[작품10]에는 꽃과 식물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는데, 평상시 수집해두었던 이미지들의 결합과 감정들을 매치하여 형태와 색채 구성에 집중한 작품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집한 이미지의 결합을 이용하여 그려진 <위안>[작품11]이 있다. 이 작품은 고독한 인간의 허기진 감정을 그려내기 위해 사용하였던 위장의 이미지를 차가운 벽돌이란 이미지와 결합하여 또 다른 조형적 충족감을 표현해 보고자 한 작품이다. <개구리 장난감>[작품12] 또한 지하철 바닥에서 본 형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일상에서 얻어진 이미지를 통해 감정을 대입하고 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색과 형태를 사용하여 작품을 진행했다.

이처럼 형상은 경험과 더불어 평상시 본인이 매력적으로 느꼈던 무늬 또는 형태로, 상황에 맞게 차용함으로써 작업에 있어 장식적인 역할과 동시에 회화를 표현하고자 함에 있어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로써 작용한다.

본인에게 있어 사소한 일상적 경험은 회화적 가치를 발현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가장 가까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그 경험은 가까이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TV 속의 장거리 인물이 될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화장실에 있는 타일 벽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은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위에서와 같이 일상적 경험의 관찰과 재인식의 시간은 내면의 자기치유로서의 회화를 구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여겨지며, 이렇게 획득 되어진 것들은 본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생각과 시선을 담은 눈이자 치유의 수단이 된다.

2) 드로잉적 표현방법

회화 작품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의 방식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자신에게 맞는 재료, 형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본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창조해내는 과정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 중 하나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회화라고 생각했고, 미적 충족감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써 적합한 표현방식이라 여겨졌다. 경험한 것과 관찰한 것을 구상하고 상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원하는 형태와 색채의 사용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려 힘썼다. 관찰한 이미지를 사실적 묘사와 기술에만 치중하지 않고 직관적인 감각과 사고에 의한 내면적 의식을 조형적인 본인만의 형태와 색채를 만들어 표현하고 시각적 충족감을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인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³¹⁾는 그림과 낙서, 드로잉을 장난스럽게 결합하는 독창적인 양식을 선보이는 화가로, 특

31)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는 1928년 미국 버지니아 렉싱턴에서 태어나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보스턴 미술관학교와 뉴욕의 아트스튜던트리그에서 미술 수업을 받았다. 1951년 동료인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권고로 블랙마운틴대학에 입학하여 1952년까지 공부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과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벤 샨(Ben Shahn)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음악 감독 존 케이지(John Cage)를 만나기도 했다. 톰블리는 그림과 낙서, 드로잉을 장난스럽게 결합하는 전에 없는 양식을 선보였다. 그는 매체들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함으로써 색다른 시각적,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였다. 유럽 지중해의 오래된 건축과 신화의 이미지를 특유의 선묘와 상징적인 기호로 풀어낸 그의 작품은 서정적이며 직관적이다. 휘갈겨 쓴 서체의 흔적들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연상시키며 폭발할 듯한 강한 에너지를 화면에 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레다와 백조 Leda and the Swan》(1962), 《무제 》(1968), 《니니의 회화 Nini's Painting》(1971), 《사계:봄 The Four Seasons:Spring》(1993~1994) 등이 있다. (doopedia, 두산백과)

유의 선묘와 서투른 글자체 등을 작품에 어우러져 회화로써의 충족감을 만족시켜주고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갖게 해준다. <Untitled>[도판6]에서 보여 지듯이 그의 작품은 자유로운 드로잉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회화가 지니는 장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본인은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앞서 소개한 추상주의 화가 사이 톰블리와 같은 회화만이 가지는 충족감을 가지려 노력을 기울였다.

<감추고 싶은 사람>[작품4]은 본인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느꼈던 감정을 형태의 변형과 함께 감각적인 색채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사람의 팔을 유연하게 빙빙 돌려 파배기처럼 몸을 감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그려 인체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시켰고, 옷을 겹겹이 겹쳐 입은 모습을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회화의 자유스러운 표현 방법을 통하여 테두리에만 그어 놓음으로써 선의 간략한 표현과 함께 드로잉적으로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머릿속에서 그려진 형상을 감각적으로 전환하고 미적, 회화적으로 만족감을 충족시켜 보고자 한 것이다. <심폐소생술>[작품6]은 사람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상황을 표현한 작업이다. 사람의 가슴과 양손만 확대 표현하여 조형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에서 배경이 되는 물결의 표현은 눈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아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면에 갇혀 지내는 인간에게 심폐소생술 해주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본 작업이다. 심각하고 우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투박한 선과 밝은 색의 조합으로 유쾌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중의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 전반에 나타난 변형된 형태와 흐르는 물감의 사용은 회화만이 가지는 드로잉적인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본인은 모든 회화 작업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개성적이면서 감각적인 색채와 형태를 사용하여 작업에 임하려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법과 이미지 창출을 위해 본인의 감각적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다.

3. 작품설명



[작품 1] <커피 마시는 사람 I> 110 x 7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08

[작품 1]

작품제목 : 커피 마시는 사람 I

작품크기 : 110 x 70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08

이 작업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커피라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모습이다. 커피라는 음료는 단순히 맛을 느끼기 위한 기호식품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잠을 깨기 위한 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각박한 삶에 치여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얻고자하여 마시는 음료로 느껴졌고 그것을 섭취할 때 심장의 쿵쾅거렸던 느낌을 화면에 담아보았다.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심장박동수가 올라가 약간은 상기된 표정과 위장을 통해 음료가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내장을 같이 그려 넣어 표현하였다. 커피숍 내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삭제하고 벽 내부에 있는 타일 무늬만 그려 넣음으로써 장식성을 가미하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의 느낌의 전달을 위해 주제를 부각시켜주었다. 회화 특유의 자유로운 표현력을 사용해 팔의 움직임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내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어 시각적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2] <커피 마시는 사람 II> 53 x 46 cm 장지에 혼합재료 2008

[작품 2]

작품제목 : 커피 마시는 사람 II

작품크기 : 53 x 46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08

앞서 설명한 [작품 1]<커피 마시는 사람 I>의 연작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을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경험한 느낌을 표현한 작업이다. 사람의 격앙된 표정과 커피를 들이 부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연출하였는데, 카페인 음료를 기호 식품으로써의 섭취가 아닌 필요에 의한 섭취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실적인 묘사를 피하고 필요한 이미지들만을 끌어와 사용함으로써 회화의 자연스러움을 살려주었다. 격앙된 이미지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눈동자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형광 빛을 띄는 초록색으로 칠하였고 머리 형태 또한 바깥으로 뻗어있게 표현하여 상기된 사람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작품 3] <옷 벗는 사람>, 227 x 182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3

[작품 3]

작품제목 : 옷 벗는 사람

작품크기 : 227 x 182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의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 작업이다. 많은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 적으로 옷을 벗어내는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작업으로, 약간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듯 한 땡땡이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을 화면에 담아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술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일상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흥미롭게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그려진 얼룩말 패턴의 러그나 화분, 그리고 벽면의 타일 무늬나 땡땡이 바지 무늬 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상들로써, 잡지나 의상 등에서 획득한 형상들이다. 형상들을 수집함으로써 그것들을 작품에 차용하여 작품의 위치와 상황에 어우러지게 사용하여 표현해보았다.



[작품 4] <감추고 싶은 사람> 91 x 73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3

[작품 4]

작품제목 : 감추고 싶은 사람

작품크기 : 91 x 73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은 본인의 경험의 기억을 되살려 그린 작품으로, 길게 늘어진 팔을 돌돌 말아 몸을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한 사람의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을 인체의 변형을 통해 표현한 작업이다. 인체의 형상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옷을 겹겹이 겹쳐 입은 모습을 표현했다.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회화의 자유스러운 표현 방법을 통하여 테두리에만 그어 놓음으로써 선의 간략한 표현과 함께 드로잉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팔을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여 몸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누구나 겪었을 한번 쯤 겪었을 법한 상황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보고자 하였다.



[작품 5] <부분마취>, 194 x 13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0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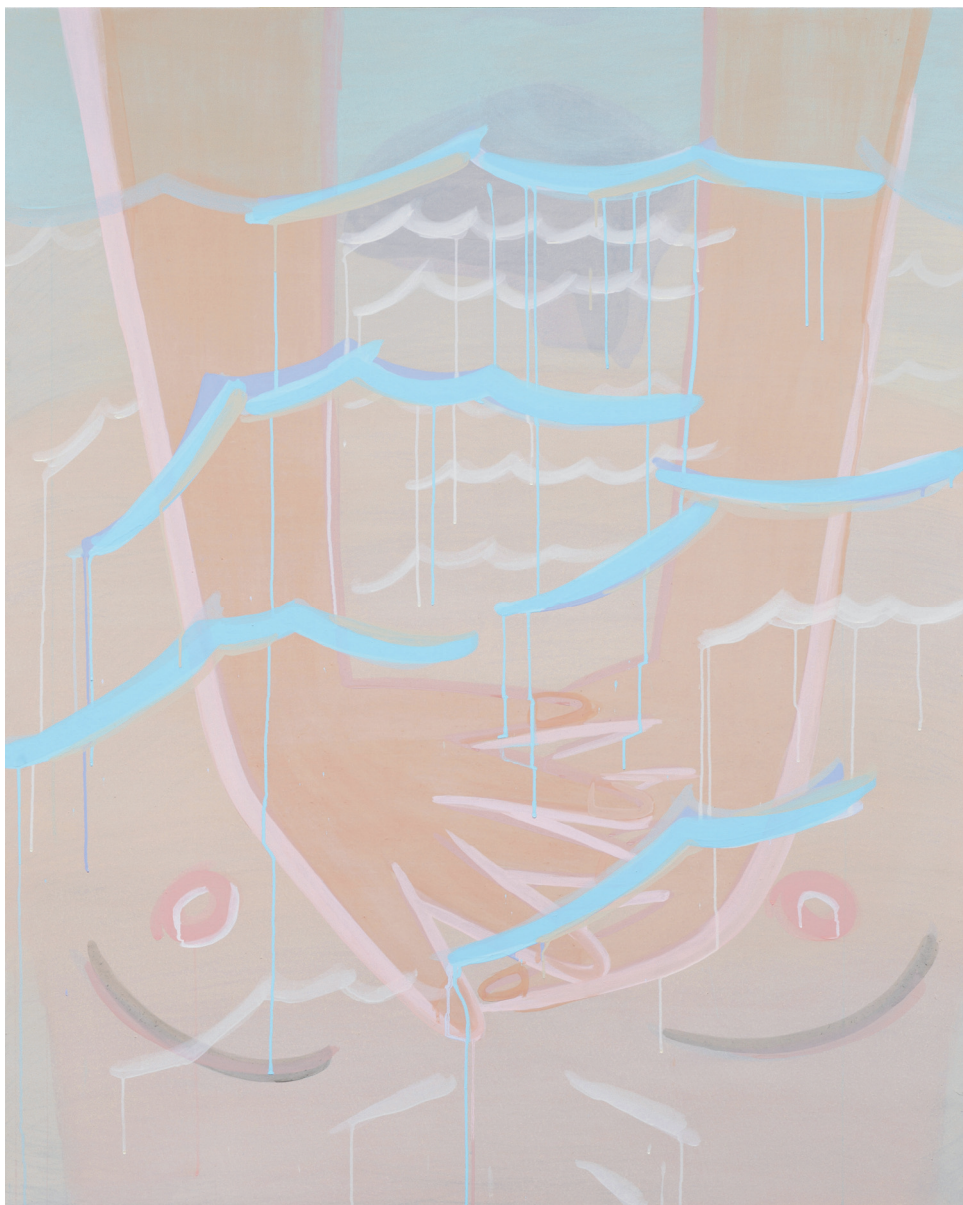
작품제목 : 부분마취

작품크기 : 194 x 130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0

이 작품은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되새긴 작업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낮설고 괴로운 느낌을 기억하며 그린 작업이다. 다리 부상으로 인해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서 깨어나는 과정을 표현하였는데, 곧게 펴져 있는 다리가 꼬아져 있는 것 같아 풀어달라며 조르던 기억을 그려냈다. 공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선으로만 병실 침대와 시계만 표현하여 그때의 기분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오른쪽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것은 마취가 빨리 깨어나길 바라며 바라보았던 기억을 되새겨 그렸으며, 배경에 깔린 에메랄드빛은 병원을 상징하는 초록색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작품 6] <심폐소생술>, 162 x 13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1

[작품 6]

작품제목 : 심폐소생술

작품크기 : 162 x 130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1

이 작업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형상화하여 나타낸 작품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인 사람의 가슴과 양손만 확대해서 표현하여 조형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구성해 보았다. 이 작업에서 배경이 되는 물결의 표현은 눈물을 뜻하는 것으로 물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아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면에 갇혀 지내는 삶에 스스로에게 심폐소생술 해줌으로써 고독하고 슬픈 마음을 유쾌하게 달래보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바탕을 연필로 어둡게 깔기 시작하여 밝은 색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려나가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심각하고 우울한 상황을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선의 사용과 밝은 색의 조합으로 치유하려는 자구적 노력의 뜻을 내포 하고 있다. 밝아 보이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중의적인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축박한 사람 I> 41 x 32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1

[작품 7]

작품제목 : 촉박한 사람 I

작품크기 : 41 x 32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1

이 작품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사람의 이미지와 시계 이미지의 조합하여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업이다. 시간에 쫓겨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본인의 경험을 되살려 그려낸 이미지로, 촉박한 마음에 시계와 일을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듯 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네 개를 그려 넣어 줌으로써 급박한 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 작품이다.



[작품 8] <축박한 사람 II>, 194 x 13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0

[작품 8]

작품제목 : 촉박한 사람 II

작품크기 : 194 x 130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은 앞서 나온 <촉박한 사람 I>[작품 7]과 같은 제목의 작업으로, 여성이 주제가 되어 그려진 작업이다. 바쁜 여성의 모습을 팔 여섯 개를 달아놓음으로써 부각 시켰다. 각자의 팔에는 해야 할 일들과 숙제가 쥐어져 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진 여성의 모습을 담아냈다. 많은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내장을 은유적으로 그려 넣어 주었다. 뒤에 그려진 배경은 레이스 천 무늬로 일상에서 얻어진 이미지를 차용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9] <과부하>, 194 x 130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3

[작품 9]

작품제목 : 과부하

작품크기 : 194 x 130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은 작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작업이다. 과부하로 일이 너무 많이 맡은 상태나 기기나 장치가 다룰 수 있는 정상치를 넘은 부하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여 마치 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몸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스트레스 받고 있던 상황을 직면함으로써 유희적 상상을 통해 유쾌하게 극복하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10] <위로 위한 행위> 53 x 46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3

[작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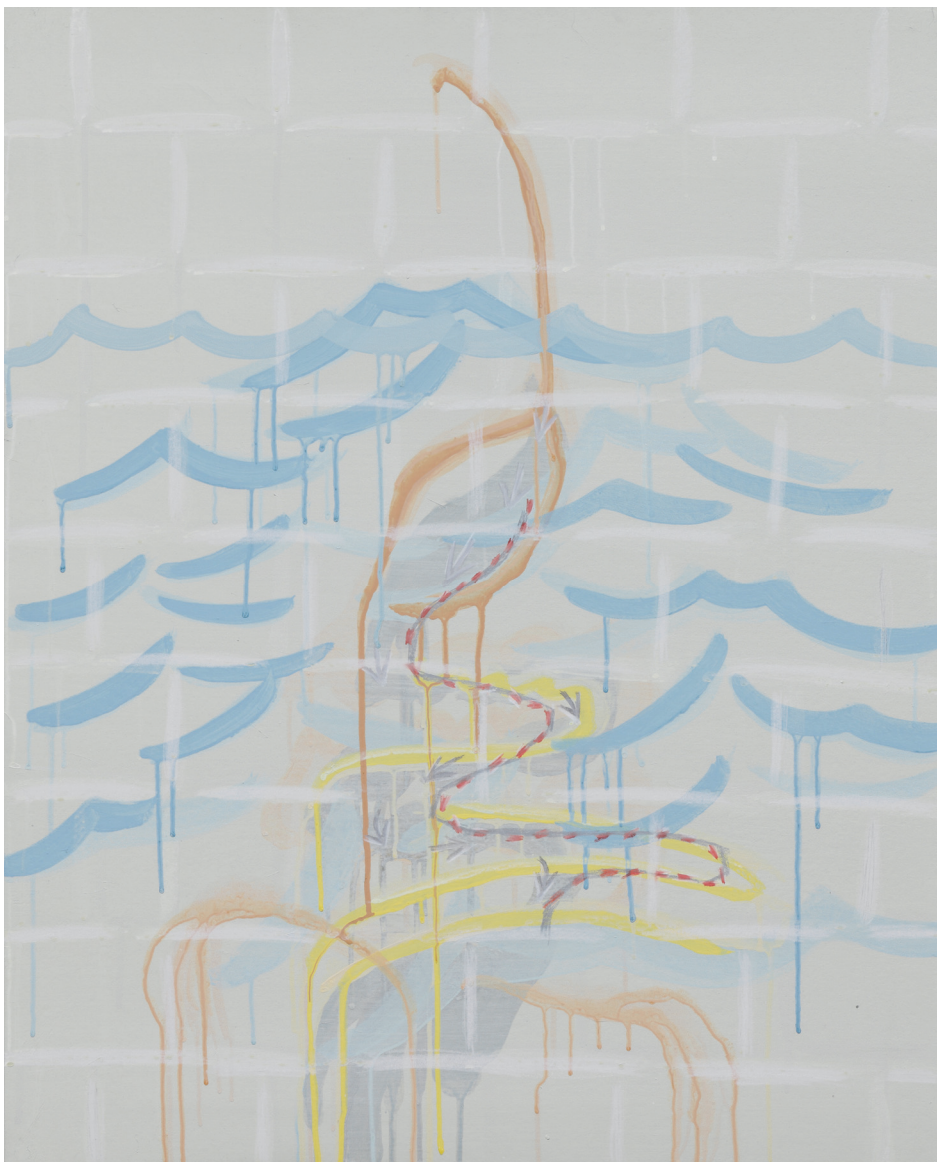
작품제목 : 위안 위한 행위

작품크기 : 53 x 46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3

꽃과 식물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평상시 본인이 즐겨 그리던 꽃과 식물의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인물과 매치하여 오로지 형태와 색채의 구성에 집중한 작업이다. 그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몽롱하면서도 아련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것들은 색의 반복적인 겹침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질기면서 두터운 장지 위에 연필, 호분, 아크릴 물감을 번갈아가며 사용해 중간 채도를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세한 채색의 변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내면을 치유하고자 한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 11] <위안> 80 x 65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1

[작품 11]

작품제목 : 위안

작품크기 : 80 x 65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1

이 작품은 일상에서 획득한 조형적으로 충족감을 주는 벽의 이미지와 평상시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위장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그려낸 작업이다. 처음 위장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마음을 채우지 못해 허기진 사람을 그려내면서 부터 등장하였는데, 자기 방어와 소화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주 등장한다. 이는 넘쳐나는 정보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소화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의 매개체로써 자주 사용된다. 벽들의 차가운 이미지와 위장의 자기 방어적 이미지를 조합하여 차가운 현실에 대처해 나가는 형상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벽들의 이미지는 차갑고 단단하게 그린 후에 그 벽 위에 마치 낙서를 하듯이 물감과 색연필로 위장 기관을 그려 넣어 주었다.



[작품 12] <길거리 장난감> 53 x 46 cm 장지에 혼합재료 2010

[작품 12]

작품제목 : 길거리 장난감

작품크기 : 53 x 46 cm

작품재료 :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년도 : 2010

지하철 길바닥 한편에서 같은 공간을 한없이 빙빙 돌고 있는 개구리 장난감에 감정 이입을 함으로써 그려진 작업이다. 희뿌연 배경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돌고 있는 개구리 장난감의 모습은 마치 가끔씩 일탈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과 지하철 퇴근길을 배경으로 한 직장인들의 모습이 함께 결부되어 보여 표현해본 작품이다.

Ⅲ. 결 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현대 사회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겉모습과는 달리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과 박탈감, 소외감, 무력감 등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엔 또 다른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드리워져 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과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함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대인 관계에서 오는 말 한마디의 상처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고통들을 억압하고 회피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은 곧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TV나 라디오에서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나 범죄관련 소식들이 이제는 너무도 빈번하게 들려온다. 본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흐름들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었다. 작품은 본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자화상이 되기도 한다. 일상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유희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 봄으로써 본인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치유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소홀하였던 일상에 대해 주목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스스로를 고립하는 과정을 회화를 통해 치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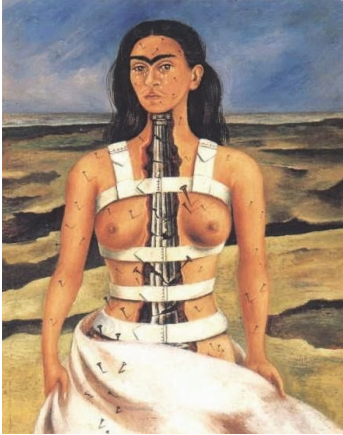
본인이 작품을 연구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은

계속해서 변해가며, 현대적 고향을 겪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나날보다 더욱 가중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소외됨과 불안 등 현대 사회에서 겪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는 방법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직면하고 현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느껴보면서 해결 과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구를 통해 마음속의 가치 체계를 다시 되 짚어 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소통을 시도해봄으로써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회인들의 다중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회화 작품을 통하여 심적 고난을 더욱 깊이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집중 하고자 한다. 또한 그것을 대중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서로에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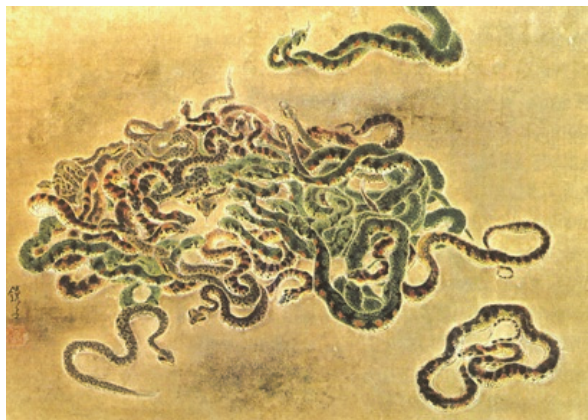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 1] 프리다 칼로, <부서진
기둥(Lacolonne brisée)>,
캔버스에 유채, 40 x 30.5 cm,
1944



[도판 2] 루이스 부르주아, <침대
위의 일곱명의 인체(Seven in Bed)>,
철,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나무, 172.7 x 85 x 87.6 cm,
2001



[도판 3] 천경자, <생태(生態)>, 종이에 채색, 58 x 83.5 cm, 1951



[도판 4] 박생광, <명성황후>, 한지에 수묵채색, 330 x 200 cm, 1983



[도판 5] 박생광, <전봉준>, 한지에 수묵채색, 510 x 310 cm, 1985



[도판 6]사이 톰블리, <무제(Untitled)>, 캔버스에 오일, 크레용,
200.6 x 261.6 cm, 1968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준기,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시그마북스, 2009
- 롤로 메이,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 Maurice Merleau-Ponty,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12
-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기과랑, 2006
- Otto F. Bonllow, 『삶의 철학』, 백승균 역, 경문사 1979
- 제라르 마크롱(Jerard Macqueron), 정기현 역, 『고독의 심리학』 뮤진트리, 2010
- 주리에,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서울:학지사, 2000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79
- 캐롤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김호경 옮김, 예경, 2010
- 캐시 A. 말키오디,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연 옮김, 조형교육, 2008
- 켈빈 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편집부 역, 서울:두로출판사, 1994
-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동아문화사, 2000

<학위논문>

- 김윤경, 『이미지를 통한 내면의식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7
- 노태범, 『呪術美術의 象徵性과 그 形象化에 대한 研究 : 符作의 現代的 解

析과 變容을 中心으로』,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송승희, 『자기술회를 통한 미술치유에 관한 연구 : 이중섭, 프리다 칼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10
- 하세경, 『현대 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ABSTRACT

Healing through the day-to-day experience as a Research pictorial representation

- Centering Around My Work -

Kim JungEu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centers on the author's works related to pictorial expressions for healing the sense of loneliness and anxiety that humans within the society go through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the new recognition of daily experiences.

As materialism is prioritized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humans themselves become hard-hearted and chose to live life in loneliness. Furthermore, such feeling of loneliness approaches to them in negative feelings such as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When one is shocked or hurt, humans isolate themselves and such emotions becomes deeper, making one feel confused. At this

point, humans tend to rely on something else to escape from the moment. Sometimes, they either lean towards stimulating favorite food or drugs that cheers them up or excites them or they tend to find their own ways to obtain momentary pleasure such as pouring out their emotions on someone else. However, this is only a momentary and passive countermeasure and psychologically, they will still be susceptible to the sense of loss, helplessness, emptiness and so on, ultimately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oneself.

The author wished to find a more continuous and active method to resolve such emotions and the author reminisced the young days when the author converted lonely feelings or situations pleasantly on the pretext of imagination. And I started from the process of looking back at the emotions felt in the daily life which is mostly closed related to humans and at the experiences derived from it. In life, some things are taken for granted as things are repeated so attention was paid to the smallest details that were considered to be less important. The loneliness and unstable emotions and situations experienced in the daily life was converted pleasantly under imagination and the images representing the new understanding were portrayed in the images with the purpose of consoling and healing through the paintings.

Therefore, the lonely and anxious inner sides that modern people feel have been examined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at act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art works. Measures to obtain a more positive inner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and the

role of healing through daily experiences was examined.

Next,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ng the works, the importance which has been focused on with regards to creation of paintings is discussed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ducing works that could create a common ground and console the viewers by expressing in pictorial languages not only the subjective experiences or emotions but the emotions that could be felt by any modern people living in this era.